제로원(0,1) 오리지널

(롬6:1~11)

[롬]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6: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로원(0,1)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은 제로원(0,1)의 영적 원리로 쓰여 져서 끝이 납니다.
성경 모든 구절에서 제로원(0,1)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바로 이 제로원의 영적 원리 하나를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 졌다고 해도 절대로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로원(0,1)복음방송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모든 구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제로원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약속되어 진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로원 원리의 오리지널 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노골적으로 0과 1의 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6장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로원(0,1)이라는 것은 이진법 숫자입니다.
이 이진법의 창시자인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진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이진법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는 일이 꺼집니다.
그러면 내가 신경 쓰는 대상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향해서만 내 마음이 켜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의 내용은, 내가 세상에 대해 꺼지면 하나님께서 내 세상의 삶에 대해 켜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진법 원리에요.
오늘 사도바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이 이진법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 이전의 일입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이외의 수많은 대상들에게 주어져 있고, 어느 하나의 대상과 묶여있습니다.
마음이 이것들과 묶여있는 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묶여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풀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갈 수 있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일어난 이 십자가사건의 제로원의 원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과정은 우리 마음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을 그대로 앞서서 길을 열어 개척을 해놓으신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개척하며 열어놓으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가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 완성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연합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할 때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게 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게 빗나감을 뜻하는 말이에요.
행위적인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기 이전에 그 행위적인 범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위적 범죄는 증상이지요, 죄의 증상.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마음이 빗나갔다는 얘깁니다.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 죄라는 말이 빗나감 안데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빗나갔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빗나갔다는 것은 첫째, 마음이 하나님을 비껴지나가서 몸에 달라붙은 존재의 구조,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제일 가까운 대상은 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마음이 가장 먼저 마주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구조에서 사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비껴서 빗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빗나가고 몸에 가 달라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존재의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가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몸이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해버립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 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을 해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마음이 하나님을 빗나가서 몸에 가 달라붙어있기 때문에 몸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에 따라 몸을 움직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 마음이 몸에 가서 달라붙어있는 구조, 하나님을 먼저 만나 하나님께 달라붙어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비껴나가서 몸에 달라붙어있는 이 구조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몸에 가 달라붙어있는 상태에서 한번 너희 몸을 움직여서 내가 제시하는 율법을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아, 내 존재의 구조 자체가 잘못 돼있구나, 나는 도저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의 구조를 갖고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크고 넓은 죄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복음이 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 죄고,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 마음이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게 꺼내져서 이식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심장을 꺼내서 이식하는데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게 이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몸에 가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요.
이렇게 몸에서 만나지는 상황이나 몸이 만나는 대상들, 사람이나 물건,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이 심겨지는 것, 이걸 우리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혹은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세 번째의 죄의 상태는, 그렇게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서 몸이 만나고 있는 대

상들에 내 마음을 이식할 때 그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 몸이 만나는 자식에게 내 마음을 꺼내서 이식해놓게 되고, 자식의 상황이 변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이 잘됐다고 기뻐하는 것,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 내 몸이 건강하다고 기뻐하는 것, 애국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죄가 아닌 상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식을 만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미 기쁜 상태에서 돈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미 기뻐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상태가 잘못된 존재의 구조로 잘못된 대상에게 심장을 이식하고, 잘못된 대상으로부터의 기쁨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런 죄의 상태에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이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을 주는 게 생명이에요.
이전에 생명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전에 내가 움직이면서 살게 되었던 이유가 뭔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구 생명이 뭡니까? 나를 움직이게 했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전토라는 건 내 소유 내 재산 전체를 통틀어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움직이면서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즉 나의 생명이었지요, 구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 내용을 알아보면 이러한 몸이 만나는 구 생명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심장을 이식해놓고 그것들 때문에 살고 있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대상들이 요구하고 대상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로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면

서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조차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장을 건강에 이식해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구 생명들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 생명들을 잘 보존함으로써 행복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구 생명들에 대해서 죽습니다.
새 생명 안에서 거하는 삶이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곧바로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있는 구조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안에 들어있는 몸을 따라서 마음이 가정문제에 휩싸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이미 내가 주체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면서 가정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문제가 풍랑처럼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은 그 가정문제에 휩싸여서 걱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정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바로 내 앞에 펼쳐진 가정문제에 대한 나의 죽음을 뜻한다고 믿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 기도하면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기도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어서 가정문제에 대해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 마음이 부활해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던 가정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니까, 마음이 갈 방향이 하늘로 똫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이때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정문제보다도 더 실감나는 앞선 현실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몸이 만나는 그 어떤 상황, 몸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 몸이 만나는 그 어떤 사물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먼저 계시고 앞서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존재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으므로 존재 순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희 3형제를 키우실 때, 예를 들어 고기반찬을 하셨다, 절대 한 접시에 다 담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살 터울인데다 제가 몸이 제일 뚱뚱하고 컸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간 잘못하면 큰형은 국물도 없어요, 제가 하도 식탐이 많아서.
그래서 조그만 접시에 고기를 담아주시는데, 순서도 양도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난 큰형에게 제일 많이 주시고, 작은형에게 그 다음으로 많이 주시고, 제일 많이 먹고 싶은 저에게는 제일 조금 주셨습니다.
존재의 순서를 따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마음이 몸에 붙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휘말려 들어가려는 순간에 내가 몸으로 대면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이 사람, 어떤 대상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데, 나는 묶여서 못가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끌려가려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바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될 것입니다.

제로원(0,1) 오리지널.
로마서 6장 전체가 지금 제로원의 원리를 극명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들 눈앞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6장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제로원의 원리가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른 것 복잡한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 다 잊더라도 0과 1로 상징되고 있는 이 죽음과 삶, 꺼짐과 켜짐, 끊어짐과 이어짐의 영적 원리만은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복음을 생활화하며, 복음 속에 약속된 모든 은총을 낱낱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